

## 코로나19와 동남아시아: 특집 기획 서설\*

전 제 성\*\*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대응과 지역협력의 전개에 관한 특집을 구성하고 그 방향성을 논의하는 서론이다. 우선, 동남아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소개하고, 후속 연구 공조에 동의하는 동남아연구자들의 포럼 형성을 보고한다. 두 번째로, 국가별 초기 대응 사례 연구를 위해 사례 집단을 분류하고, 대표 사례를 선정하며 그 연구 가치를 논한다. 세 번째로 아세안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동태를 연구할 필요성과 고려 사항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구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담는다. 구체적으로 비교적 시각에 입각한 사례 연구, 독립 변수로서 국가 능력과 정치리더십 및 사회적 협력의 중요성, 감염병 대응 기관의 체계와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동남아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 제도의 발전, 그리고 아세안과 동아시아 차원의 인간 안보 협력의 심화 등 이번 팬데믹이 유발할 긍정적 변화까지 장기적으로 함께 추적하자고 제안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아세안, 인간 안보, 지역 협력, 국가 능력, 리더십, 비교연구, 동아시아 모델.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0989).

\*\*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소장, 정치외교학과 교수. jjeseong@gmail.com.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 다만 우리가 경계하고 단호하며 단결한다면, 이 질병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Facebook: @lechsienloong).

지난 3월 27일에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민들에게 전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다. 당시 ‘방역 모범’ 사례로 일컬어지던 싱가포르는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수개월간 건설직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며 코로나 대응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우리나라 역시 최초 감염자 발생 후 100일이 경과할 때 방역 성공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자축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달 8월 중순부터 감염의 두 번째 파도를 맞이하여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에 맞서려면 우리가 실로 주의하며 협력하고 적시에 단호히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감염병 대유행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할 것이다. 나와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선에서 너나없이 싸워야 한다. 감염병 대응 전선의 최전방에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가 있지만,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비교하고 인과관계를 찾고 다각적 파장을 가늠하고 국제적 협력을 제안하려는 학계의 연구도 이번 ‘총력전’(total war)에 가세하는 후방 지원 활동으로서 가치를 지닐 것이다.

더구나 동남아시아 지역은 가치사슬과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우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에 이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전개는 정밀하고 꾸준하게 추적 관찰되어야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환경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이 취한 대응 전략의 성패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교훈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하다.

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보건 의료 협력체계를 상설 운영하는 동아시아 역내 유일의 기구로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협력의 희망을 제공하기에 우리가 그 동태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중대하고 시급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와 동남아시아” 특집을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 논문은 특집의 기획자로서 제시하는 서론이다.

## 1. 우리 동남아학계의 코로나19 대응

동남아 코로나19 전개 및 대응에 관한 우리 학계의 첫 번째 연구 성과는 4월 17일에 전동연(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이슈페이퍼 1호로 발간되었다(김희숙·유민지·김다혜·김현경·양영란·전제성 2020). 36쪽에 달하는 이 페이퍼는 6명의 전동연 연구자들이 작전하듯이 협력하여 동남아 11개국 전체의 동향을 비교한 포괄적이고 집단적인 연구 성과였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이른 출발이었다. 호주 국립대에서 발간하는 저널 『뉴 만달라』(New Mandala)가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동남아”(Southeast Asia in a Time of Coronavirus) 연재를 시작한지 이틀 뒤였고, 교토대 동남아지역연구소(CSEAS,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가 “코로나 연대기: 현지의 목소리들”(Corona Chronicles: Voices from the Field) 연재를 시작하기 20일 전이었다. 이후 전동연은 코로나19 관련 이슈페이퍼들을 추가로 연속 발간하였다(서보경 2020; 고영경 2020; 양영란·김희숙 2020; 유민지 2020).

한편 서강대 동아연구소도 웹진 『서강동연』 3호와 4호에 걸쳐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했다(김종호 2020; 백용훈 2020; 유예지 2020; 정정훈 2020; 고은비 2020).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VIP진출기업현장지회지원사업단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과 기업환경 변화에 관한 정책보고서 『로컬 인사이트』를 발간하였다(엄은희·육수현·이지혁 2020). 이렇듯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를 수행하는 3개 연구소의 선도는 동남아의 감염병 대응 연구자들끼리 모임을 결성하고 함께 공조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협력 연구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대응포럼’이 전동연 주관으로 5월 19일에 출범하였다. 순차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17명의 학회원들이 동남아 각국 및 아세안의 코로나 대응에 관한 모니터링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전동연이 주관하게 된 경위는 소극적인 이유와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동남아학회가 국가별·주제별 연구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학계의 포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전제성 2018). 이에 대해 정연식 학회장도 회원들이 자생적으로 연구위원회를 결성한다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동남아학회 산하 보건복지연구위원회를 시범적으로 결성코자 하였으나 위원장직을 수락하는 회원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전동연이 포럼을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이것이 소극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적극적인 이유는 보건의료 문제가 전동연이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연구영역 중에 하나라는 점이다. 전동연이 수주한 한국연구재단 과제가 “사람 중심의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노동·보건·복지연구”여서 연구진 전원을 코로나19 대응 연구에 투입하였고 관련 연구 성과들을 다양한 경로로 확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근거로 전동연이 포럼의 한시적 거점으로 기능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 지원 연구비 대부분이 대학 연구소에 쏠리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학회의 활동을 대학 연구소들이 후원하고 분

담해야 한다는 것 역시 필자의 지론이다(Jeon 2019). 물론 포럼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애초의 기획처럼 한국동남아학회 산하 보건복지연구위원회가 머지않아 출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코로나대응포럼은 이번 특집 편성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포럼은 다양한 발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확산을 촉진했다. 2020년 5월 8일에 대한민국 외교부 아세안국의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포럼의 전동연 참여진이 동남아의 코로나 대응에 관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이어서 포럼은 5월 27일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한 신남방정책 출범 3주년 기념 전문가정책간담회 “‘사람중심’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도약”에서 보건협력 패널을 구성했고, 지난 8월 21일과 22일에 화상으로 개최된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와 동남아 패널을 조직하여 참여했다. 다가오는 10월 16일에 서울에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개최하는 제7회 신흥지역연구통합학술회의도 한국동남아학회의 이름으로 신남방지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패널을 구성하여 참여할 계획이다.

동남아의 코로나 대응에 관하여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연구들이 각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 학회지를 포함하여 여러 학술지에 수록된 동남아의 코로나19 관련 연구 성과들을 선별하여 학술단행본으로 편집 발간할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학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물론이고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연락도 기대한다. 감염병 대응 연구는 인문사회계를 넘어서는 광범위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포럼이 간호학이나 의학 연구자들을 포괄하는 융합연구의 실험장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 국제적 연구 공조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교토대 동남아지역연구소의 요코 하야미(Yoko Hayami) 소장은 이미 작년에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동남아 보건의료 연구팀을 출범시켰다. 이런 연구팀과 우리 포

럼이 연구 정보 교환부터 시작하여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자 간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점진적 상향의 방식으로 국제적 연구 공조를 추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다.

## II. 국가별 대응 사례 연구

우리의 우선적 관심은 동남아 국가별 코로나19 확산과 대응에 관한 것이었다. 동남아의 초기 대응은 국가별로 제각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비교하자면 동남아 각국의 대응은 대체로 양호한 사례에 속한다. 초기 과정에서 감염이 들불처럼 확산되던 ‘이탈리아화’ 현상을 피할 수 있었고, 최근까지 살펴봐도 미국이나 브라질, 스페인처럼 속수무책인 상황에 빠져들지도 않았다. 동남아 국가 대다수의 대응 방식은 한국과 대만 사례까지 포함하여 ‘동아시아 방역 모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동아시아 발전 모델’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동아시아 발전 모델과 달리 동아시아 방역 모델에서 동남아 일부 국가는 주변이 아니라 중심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에서 한국과 대만 같은 동북아 국가들이 모델의 “핵심”(core) 사례에 속하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은 “준발전국가”(semi-developmental state)로 불리며 주변적인 존재로 구분되곤 했다(Islam and Chowdhury 2000). 그렇지만 동아시아 방역 모델에서는 베트남과 태국 같은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이 선도적 핵심으로 떠오르며 더 이상 주변성에 머물러 있지 않는 역량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이번 전선에서 놀랍도록 잘 싸우고 있지만 지역 내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편차도 존재한다. 상대적이고 잠정적이지만 과감히 구분하자면 ‘좋은 사례’(the good), ‘나쁜 사

례'(the bad), '이상한 사례'(the mysterious) 세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다. 동남아의 코로나 대응에서 좋은 사례의 선두는 베트남이고 태국과 브루나이도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초반에 고전했던 말레이시아도 지금은 이 부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대표적인 나쁜 사례는 필리핀이고 그 다음을 인도네시아가 우려스럽게 뒤 따르고 있다. 싱가포르의 모범 사례에서 문제 사례로 전환된 경우에도 속한다. 여전히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미스테리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사례이다.

우리는 세 가지 부류를 대표하는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과 싱가포르, 그리고 미얀마 사례에 먼저 관심을 기울인다. 베트남과 태국 사례를 통해 우리가 참고하고 응용할 정책들을 찾을 수 있겠고, 필리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피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대응은 그 부침의 과정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양영란·김희숙 2020). 더구나 국제항으로서 일찍이 세계적인 감염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싱가포르 사례는 역사적으로 맥락적 변천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동남아에서 가장 늦게 확진자 발생이 보고된 미얀마 사례는 모호성을 줄이고 분류를 완성하려는 '앞에의 의지', 그리고 방역 지원 전략을 적절히 설정하려는 실천적 의도를 담아 특집에 포함시켰다. 미얀마는 중국과의 밀접성이나 의료역량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확진과 치명의 수가 적은 기이한 사례다. 그런데 최근에 소수종족 지대에서 감염의 2차 확산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국가 방역의 지방적 편차에 관한 관심을 요하는 사례이기도 하다(김희숙 면담, 2020.08).

지금까지 잘 싸웠다고 세계의 이목을 끄는 베트남 사례 연구는 특별히 두 편의 논문을 수록할 계획이다. 이번 호는 "전쟁처럼" 수행된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고찰한 논문이 먼저 실린다. 베트남 전문가이자 인류학자인 육수현 박사는 베트남 정부의 단호하고 신

속한 리더십, 국민적 동의와 협력을 동원하는 전략적 선전과 전쟁의 수사, 이러한 대응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한국과 베트남의 갈등의 해소 과정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다음 호에 수록될 베트남 사례 연구는 초기 대응을 넘어 더 긴 과정을 종합하면서 보건의료적 차원의 평가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으려는 동남아 국가별 대응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연구가 최소한 국가 사례 연구는 권장되어 마땅하다. 이번에도 그랬듯이 다음 특집도 동남아의 다양한 국가별 대응 관련 사례연구나 비교연구의 투고에 대해 열려있다.

### Ⅲ. 아세안의 대응과 지역협력 연구

국가별로 긴박하게 이루어진 초기 대응의 이면에서 지역협력이 논의되었고 머지않아 성과를 보인다. 의장국 베트남의 리더십으로 아세안 회원국 간에 그리고 아세안과 그 주요 상대국 간의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일찍이 이루어고 있었다(Hoang Thi Ha 2020). 4월 14일 오전의 아세안정상회의, 그리고 오후에 이어진 아세안+3특별정상회의(Special ASEAN Plus Three Summit on Coronavirus Disease 2019)의 공동성명 발표는 동아시아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협력을 본격 출범시킨 분수령이었다(김희숙 외 2020: 27-28; Retno 2020).

우리도 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다층위로 구상되고 전개되는 역내 보건의료협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런 협력 틀 속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아세안 관련 연구는 아세안의 체계와 능력을 회의하고 비판하는 연구 경향이 한 편에 자리한다면 아세안의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 경향이 다른 한편을 차지한다고 다소 거칠게 대별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었던 마티 나탈레가와(Marty Natalegawa)는 후자의 입장에서 아세안의 체계와 능력까지 옹호하는 긍정의 시각을 끈기 있게 설파한다(마티 2019). 동아시아 차원의 방역 공조와 보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이 제공하는 각종 협의의 장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코로나 긴급 대응 전선에서는 후자의 시각이 앞장 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특집도 아세안의 감염병 대응과 신남방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논문부터 수록한다. 아세안 및 말레이시아 전문가이자 국제관계연구 정치학자인 김형중 교수는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개관하고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호 특집은 한·아세안 보건협력을 추진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논문도 수록할 예정이다. 보건협력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병대응의 내공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약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추진으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지금 성찰하고 바뀌어야 할 바가 적지 않다(서보경 2020).

#### IV. 비교적 시각과 연구 방법

우리 연구의 분석적 발전과 실천적 함의 도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대응에 관심을 국한하지 말고 비교연구를 수행하거나 비교적 시각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일사례를 다루더라도 비교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유용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비교의 시각으로 본다면 정치체제는 대응 성패의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나 권위주의에 따라 감염병 대응 성패가 갈리지 않는다는 것이다(Kleinfeld 2020).

비교적 시각에서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주요 변수는 국가 역량(state capacity; state capability)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국가가 보유한 자원 자체보다 그것을 동원하는 체계와 관계에 더 관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 역량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국가 특성을 따져갈 때 지방분권의 문제나 지방정부의 역량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국가 역량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적시에 동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인 정치리더십도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역이 효과적이려면 사회의 수용적 협력도 필수적이다(Fenner 2020). 사회적 협력에 관한 연구는 덜 진전된 상태지만, 적어도 우리는 정부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통이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투명성(transparency)이 체제(regime)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협력의 정도를 비교할 때 문화 변수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주의와 방입의 문화가 우세한 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치명의 비율이 더 높다는 가설이 제시된 바 있다(Pusic 2020).

글로벌 팬데믹이라 데이터도 글로벌 수준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동남아 역외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의 비교가 용이하다. 교차지역적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는 동남아 각국의 국가 역량과 정치리더십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방역은 특히 그 3요소인 물자·공간·인력의 체계적인 준비와 적시 동원이 결정적인 관건이다. 방역 동원의 체계와 운영을 고찰

함으로써 국가 역량과 리더십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판별을 기하려면 동남아 각국 질병관리본부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방역담당기관에 관한 비교 연구는 정책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술적 가치도 지닐 것이다.

마침 국회입법조사처가 소속 연구진 36명을 동원하여 집필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는 각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그런데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남아는 포괄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우리는 이런 연구를 동남아로 확장하는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 이 때 체계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아야 한다. 질병관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비과학성은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Yohanes 2020; Mietzner 2020). 그런데 코로나로 가로막혀 우리가 현지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은 현지조사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지역연구자들도 곤경에 몰아넣고 있지만, 이에 맞서 현지인 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방법을 적극 동원하다 보면, 우리와 현지인 사이의 호혜성(reciprocity)이 더 증진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비교연구는 공간의 차원뿐만 아니라 시간의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같은 나라에서 시기별 변화를 비교하자는 것이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심각한 감염병 피해의 경험은 국가의 대응 역량 향상과 단호한 리더십 발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추정되고 있다(Fenner 2020; Kok 2020; 오민호 2020).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대유행했던 감염병 대응 경험과 그로인한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어떤 쓰라린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방역 자원을 확충하고 체계를 가다듬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바로

직전 팬데믹과 비교하는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지만 한 세기가 넘는 시기에 걸쳐 동남아가 경험한 팬데믹들을 포괄하는 비교역사로 확장될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간의 차원에서 고려할 바가 한 가지 더 있다. 사스와 같은 다른 팬데믹들이 그랬듯이 이번도 여러 차례의 파도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는 초기대응 연구였고 인과분석도 첫 번째 파도 시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방어에 성공했다라도 방심하여 두 번째에 고전할 수 있고, 첫 전투에서 고전했다라도 학습하여 두 번째부터 잘 버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팬데믹 내에서 파도별 대응 변화를 비교 연구하는 방향으로 파도를 타며 전진해야 한다. 이러한 팬데믹 내의 국면 간 비교는 역동적인 기술과 새로운 시사점 도출, 특히 정치적 변수 분석의 심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코로나19는 연구자들도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방어적 담론에 머물지 말고 이번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만들어낼 전환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타진하고 탐구한다면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코로나19 시대의 집단적 경험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향한 동남아의 지난한 역정에 어떤 결정적 자극을 줄 것인지, 단기적인 재난지원금 살포를 넘어서 어떻게 동남아 복지제도의 발전을 촉진하는지, 아세안과 동아시아 차원의 인간안보 협력을 얼마나 격상시킬지 연구해보자는 것이다.

1997년부터 동아시아를 강타했던 경제위기를 되돌아보자.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는 특히 파국적이었다. 분쟁이 빈발하고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 위기의 완전한 극복에 7년이나 걸렸는데, 그 대미에 국가사회보장제도법의 제정이 있었다(전제성 2007). 그런데 이 법의

제정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이었다고 오늘날 평가받고 있다(Nafsiah 2015; Ardila 2020).

우리 동남아학계는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서강대 동아연구소를 중심으로 2년간,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를 기반으로 3년간, 도합 5년 동안 경제위기의 전개, 대응 및 파장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7권의 총서를 연속으로 발간한 경험이 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그랬듯이 이번 싸움도 장기전이 될 것이다. 더구나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대전으로 단기승부를 기대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며 바이러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끈질기게 추적하는 연구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고영경. 2020. “동남아 슈퍼앱 그래프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  
전동연 이슈페이퍼 3.
- 고은비. 2020. “코로나 시대 캄보디아의 관광.” 『서강동연』 4.
- 국회입법조사처. 2020.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개  
정정보판(5월 30일).
- 김종호. 2020.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서강동연』 3.
- 김형중. 2020.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와 신남방정책: 아세안을 중  
심으로.” 한국동남아학회 2020 연례학술대회 발표문.
- 김희숙·유민지·김다혜·김현경·양영란·전제성. 2020. “코로나19에 맞  
선 동남아의 대응: 초기 대처과정의 잠정적 함의.” 전동연  
이슈페이퍼 1.
- 마티 나탈레가와. 2019. 『아세안은 중요한가?』. 서울: 문학사상.
- 백용훈. 2020.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과 한국-베트남 관계 격상을  
위한 제언.” 『서강동연』 3.
- 서보경. 2020. “코로나19 위기 속의 동남아시아: 사람 중심의 보건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동연 이슈페이퍼 2.
- 양영란·김희숙. 2020.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의 빛과 그림자: 이  
원적 방역 전략과 그 함의.” 전동연 이슈페이퍼 5.
- 오민호. 2020. “과거 우리나라 신종 감염병 대응 어땠나.” 『병원신문』.  
4월 20일.
- 유민지. 2020. “아시아 방역성공의 신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동.”  
전동연 이슈페이퍼 6.
- 유예지. 2020. “태국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는 치앙마이 의 사  
례.” 『서강동연』 3.
- 육수현. 2020. “‘전쟁 같은’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극단적이면서

- 합리적인.” 한국동남아학회 2020 연례학술대회 발표문.
- 엄은희 · 유수현 · 이지혁. 2020. 『VIP 3국의 코로나19 상황과 한인 기업의 대응』.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VIP 진출기업현지화지원사업단 정책보고서 로컬 인사이드 3.
- 전제성. 2007. “인도네시아의 총체적 위기와 메가와티의 정치 리더십.” 박사명 외. 『위기 극복의 정치 리더십: 동남아 4개국 정치지도자 비교연구』. 서울: 이매진.
- \_\_\_\_\_. 2018. “한국의 동남아연구 성장과 포괄성 문제.” 『동남아시아연구』 28(4): 1-29.
- 정정훈. 2020.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전망.” 『서강동연』 4.
- Ardila Syakriah. 2020. “From Military to National Coverage: 75 Years of Indonesia’s Health Insurance.” *The Jakarta Post* 12 August.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8/12/from-military-to-national-coverage-75-years-of-indonesias-health-insurance.html?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Mailchimp&utm\\_campaign=mailchimp-aug&utm\\_term=bpjs-75](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8/12/from-military-to-national-coverage-75-years-of-indonesias-health-insurance.html?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Mailchimp&utm_campaign=mailchimp-aug&utm_term=bpjs-75) (검색일: 2020.08.18.)
- Corona Chronicles: Voices from the Field. in *CSEAS Newsletter*. <https://covid-19chronicles.cseas.kyoto-u.ac.jp/> (검색일: 2020.08.20.)
- Fenner, Sofia. 2020. “State, Regime, Government, and Society in COVID-19 Response: Establishing Baseline Expectations.” *Duck of Minerva* site. March 17. <https://duckofminerva.com/2020/03/state-regime-government-and-society-in-covid-19-response-establishing-baseline-expectations.html> (검색일: 2020.08.21.)

- Hoang Thi Ha. 2020. "The Coronavirus Could Be Vietnam's Biggest Stress Test in Its ASEAN Chairmanship." *The Diplomat*. April 9. [https://thediplomat.com/2020/04/the-coronavirus-could-be-vietnams-biggest-stress-test-in-its-asean-chairmanship/?fbclid=IwAR2YkiJ7v1Xg\\_U6YtysyAic7v4oD8K1Jotl7QX-Ks-zLfChRaM7CarV34Zg](https://thediplomat.com/2020/04/the-coronavirus-could-be-vietnams-biggest-stress-test-in-its-asean-chairmanship/?fbclid=IwAR2YkiJ7v1Xg_U6YtysyAic7v4oD8K1Jotl7QX-Ks-zLfChRaM7CarV34Zg) (검색일: 2020.08.20.)
- Islam, Iyanatul, and Anis Chowdhury.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 Post-Crisis Debate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hapter 1: 1-42.
- Jeon Je Seong. 2019. "Challenges of Southeast Asian Studies and Role of University Institutes in Korea." Keynote Speech at the ICDeSA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emocratisation in Southeast Asia) 2019. Serang, Indonesia. April 9.
- \_\_\_\_\_. 2020. "South Korea: Openness, Transparency and Solidarity Coping with COVID-19." *CSEAS Newsletter* 78. [https://covid-19chronicles.cseas.kyoto-u.ac.jp/post-008.html?fbclid=IwAR0UI0UaiHbTViKPVy3nYJsMH5YsVWceoGfeP0XpS25x\\_CGPTr68Y\\_RsiIc](https://covid-19chronicles.cseas.kyoto-u.ac.jp/post-008.html?fbclid=IwAR0UI0UaiHbTViKPVy3nYJsMH5YsVWceoGfeP0XpS25x_CGPTr68Y_RsiIc) (검색일: 2020.08.20.)
- Kleinfeld, Rachel. 2020. "Do Authoritarian or Democratic Countries Handle Pandemics Better?" Carnegie Endowment for Democracy and International Peace. Commentary. March 31. <https://carnegieendowment.org/2020/03/31/do-authoritarian-or-democratic-countries-handle-pandemics-better-pub-81404> (검색일: 2020.08.22.)
- Kok Xinghui. 2020. "Why are there so few coronavirus infections in Singapore's health workers?"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7. <https://www.scmp.com/week-asia/people/article/3092030/chin>



ese-australians-hunt-down-white-men-who-hit-asian-delivery  
(검색일: 2020.08.20.)

Mietzner, Marcus. "Populist Anti-Scientism, Religious Polarisation, and Institutionalised Corruption: How Indonesia's Democratic Decline Shaped Its COVID-19 Response."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August 5: 1-23.

Nafsiah Mboi. 2015. "Indonesia: On the Way to Universal Health Care." *Health Systems & Reform* 1(2):91-97.

Pusic, Michael. 2020. "The Culture Factor in COVID-19." *Rabbit Hole*. May 13. <https://rabbitholemag.com/the-culture-factor-in-covid-19/> (검색일: 2020.08.17.)

Retno LP Marsudi. 2020. "Building Regional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e Jakarta Post*. April 14.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20/04/14/building-regional-resilience-against-covid-19.html?fbclid=IwAR3P1CnuDrpwCl8qg8F2w-rxga0Hw-iWFTaVJvmssD2cdRkQXQIBB1NfpP4> (검색일: 2020.08.18.).

Southeast Asia in a Time of Coronavirus Series in *New Mandala: New Perspectives on Southeast Asia*. <https://www.newmandala.org/southeast-asia-in-a-time-of-coronavirus/> (검색일: 2020.08.15.)

Yohanes Sulaiman. 2020. "Indonesia's Politicisation of the Virus is Stopping Effective Response." *Globe* April 10. <https://southeastasiaglobe.com/indonesia-covid-19-response/> (검색일: 2020.08.21.)

(2020.08.26. 투고, 2020.08.28. 게재확정)

<Abstract>

## COVID-19 and Southeast Asia: Introduction to Special Edition

Je Seong JE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an introduction to discuss the composition and direction of the special edition on the respons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ooperation amid the shock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First, it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research on the response to COVID-19 in Southeast Asia, and reports the formation of a Korean scholar forum to do follow-up research of Southeast Asia in a time of COVID-19. Second, for early response case studies by country in Southeast Asia, case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representative cases are selected, and the value of the case studies is discussed. Third, the focus and considerations to study the dynamics of regional cooperation in ASEAN and East Asia are presented. Finally, some suggestions are made to advance the joint research. Specifically, it emphasizes the case studies based o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importance of state capacity, political leadership and social cooper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necessity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system and operation of disease control institutions. Furthermore, it was proposed to track the

positive changes that this pandemic would cause in the long term, such as the development of various welfare systems includ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he deepening of human security cooperation in ASEAN and East Asia.

**Key Words:** COVID-19, infectious disease, pandemic, ASEAN, human security, healthcare, regional cooperation, state capacity, leadership, comparative studies, East Asian model.

